

4세 이하 아이들도 탁아대상에 포함시켜야

최근 생산직에 있어서의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기업주에 의한 직장탁아소 설치가 늘고 있다.

미혼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에서의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임금, 작업환경 등이 보다 나은 전자업종을 선호하자 의류·섬유 제조업, 고무제품 조립업, 조립금속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기업주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거나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혼 여성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 탁아소를 설치하고 있다.

89년 5월 현재 노동부가 직장탁아소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업체 중 한국전매공사(광주)를 제외한 협진양행(구로구 가리봉동), 삼경북장(구로동), 광교물산(가리봉동), 영화실업(상계동), 린나이코리아(주안), 삼풍 캠프리지(안양), 흥화비엠(부평), 한성견직(구미), 삼화고무 국제해광실업 삼양통상(이하 부산) 등



부평에 있는 린나이코리아 탁아소의 아이들. 52명의 아이들을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까지 돌봐 준다.

90%에 달하는 업체가 사업주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서즈 수출업체인 협진양행의 최관호 차장은 "80년대 초 인력난과 잦은 이직으로 고심하다 결혼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만둔 기혼 여성근로자들에게

유아원을 설치할 때의 재취업 여부를 타진한 후 88년 5월 유아원을 설치했다"고 말한다.

또 87년에 탁아사업을 시작한 흥화비엠의 한 관계자는 "비숙련, 숙련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일손이 모자란다. 유아원을 설치한 이후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 주변 아줌마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체 1백 70여명의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1백명인 이 업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할 뿐만 아니라 화, 금요일 일주일에 이들은 오후 9시 40분까지 야근을 한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회의 한 관계자는 "원화절상,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중국 등 후

발개도국의 추격 등의 외부 타격과 함께 영세성, 인력난에 봉착해 있는 봉제업체들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기혼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장탁아소를 시혜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저임금, 잔업, 철야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직장 탁아소가 노동조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대부분의 직장탁아소들이 만 4세~취학 전 아이를 대상으로 운영함에 따라 산전산후 휴가 후부터 만 4세까지 퇴직한 다음 재취업하게 하는 것도 기업주의 일방적 발상에 의해 설치된 탁아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83년 9월 노동조합의 건

어머니, 아내로 가족 울타리 속에서 고립된 존재로 흩어져 살아오던 주부들이 사회운동세력을 형성하면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고 낯설던 '주부운동'은 이제 <공해추방운동연합> 여성분과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 <참교육실천학부모회>, <지역탁아소연합회>의 탁아모임 <여성민우회> 주부분과의 조직활동을 통해 '주부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여성민우회(회장 이효재) 주부분과 김상희 씨는 "이제 주부들은 예전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문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하는 회의만을 되풀이하거나 하루가 다르게 펼쳐지는 사회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뒤로 미루려고만은 하지 않는다"며 주부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

공개 주부교육프로그램으로 처음 <여성민우회>가 마련한 <민우 여성학교>엔 이런 변화된 생각과 배움의 욕구를 지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주부들로 '대성황'을 이룬 바 있다. 따라서 막 뿌리를 내려 가는 주부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신문 만평

반쪽이

